

#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추진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신협, 코레일·전통문화전당 등과 협약 체결 "첫 지역 특화사업지 전주서 아이들의 웃음·행복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8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전통문화전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999명분의 어린이 기차 여행권 전달식을 가졌다.

신협중앙회 우육원 관리이사,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이재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 신협은 취약계층 어린이

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12면)

이번 협약은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메카이자 신협의 첫 지역 특화사업지인 전주에서 한복, 한식, 한옥, 한지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4개 기업 및 단체가 연합했다.

신협이 프로그램 비용 일체를 후원하며, 한국철도공사는 KTX 전열차를 지원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어린이

전용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999명의 체험 대상자 모집·선정·여행 일정 진행을 맡았다.

우육원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그간 코로나19로 힘차게 뛰어놀기 어려웠던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의미와 취지 모두 뜻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통문화전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이번 협약

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메카이자 신협의 첫 지역특화사업지인 전주에서 어린이들의 새싹과 같은 웃음이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 어린이들이 전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코레일이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철도로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신협, 한국철도공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며 프로그램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5기 교육생을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에 교육생을 선발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안내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CT), 데이터 분석 등의 기초이론교육 2개월(180시간 이상),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농가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480시간 이상)에 이어, 자기 책임하에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영농경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과정 1년(900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과정 중에는 스마트팜 분야 전문가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아 영농실습을 하고, 국내 스마트팜 선도농가 견학 등을 통해 작물 재배 요령을 습득할 수 있다. /김윤성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야생 동·식물

### 생육환경 변화 모니터링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장 이경호)은 동영시 광도면 우동리 천계산 일대 임도개설이 야생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2년차 연구용역(9개월: 4월~12월)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7일,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현장에서 실시했다.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며, 학계 등 전문가로 용역수행단을 꾸려 식생·식물상,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로 구분하여 계절별 면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임도시설 여건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천계산은 남해안 중부 해안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유림 138ha에 임도 0.5km를 기(2021년)시설 하였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유림도 3.2km를 추가 시설할 계획으로 이의 연계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임도시설 발전방향 제시를 기대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1년 기초조사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임도개설 예정지 구간의 야생 동·식물 생활상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향후 임도시설계획에 적극 반영해 친환경적 임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농협은 28일 농촌진흥청을 찾아 소속기관 4곳의 연구현장을 돌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디지털 농업기술 이해의 폭 넓혀

### 전북농협, 농진청 소속기관 4곳서 농업 발전 협력방안 모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8일 농촌진흥청을 찾아 소속기관 4곳의 연구현장을 돌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재호 본부장을 비롯한 지역본부 간부직원과 시군별 대표조합장 17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현장방문은 디지털 농업기술 습득, 신 소득작물 발굴 기구 대응 전략 수립 등 농촌진흥청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립원예특작과학

원의 주요 업무와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형 CA 제정고를 둘러보면서 기술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토양환경 관리, 기후변화, 디지털농업 등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농업과학원을 방문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며, 식량작물 및 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발과 재배법 개선을 위한 연구와 기술지원을 광경하고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상기후에 따른 벼생육 연구결과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 및 펫누리관 등도 둘러봤다.

이외에도 디지털·스마트농업, 청년농업, 치유농업, 농업소득증대 등 주요 농업·농촌 현안을 주제로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내년에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행에 관련 농축산물을 포함시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전북형 상생협력모델 개발 및 발전에 힘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를 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 도시농업 수요·공급 공감대 확산

### 농진청, 부산시민공원에서

### 개발기술 설명회 열어

환경개선·교육·치유·사회문제 해결 등 도시농업 연구 분야별 최신 개발 기술을 소개하고 도시농업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8일 부산시민공원 도시농업박람회장에서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 개발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조경', '치유농업', '생활농업' 연구 분야별 산업재산권과 그동안 개발한 주요 영농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환경조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직정원 조성 사례와 수직정원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를 다뤘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노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농업 정보(콘텐츠)를 소개했다. 생활농업 분야에서는 도시농업공원 모형(모델)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2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도시농업개발기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같은 공공도시텃밭 조성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부산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한 이번 설명회는 부산도시농업박람회 누리집(dosinagup-busan.com) → 박람회 LIVE) 또는 유튜브 '제18회부산도시농업박람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텃밭 면적은 1,060헥타르(ha)에 달하며, 도시농업

참여자는 약 184만 명에 이른다. 관련 단체도 300여 개가 활동 중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도시농업 개발기술 설명회는 지난해 개발한 핵심 성과를 소개하는 장"이라며 "이번 도시농업 개발기술 설명회가 직접 도시농업 활동을 하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N농협은행 전북본부(장경민 본부장)는 27일 정읍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유)(대표이사 서현정)을 찾아 함께 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식을 기했다.

## 새만금 국가산단 유망 기업 투자 잇따라

### 제이아이테크·촌빛바이오도·군산시 등과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종모)은 28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주)제이아이테크의 반도체 재료 제조시설, (유)촌빛바이오의 '유기농 식물 성장제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안종모 새만금개발청장,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안수산국장, 황관선 군산시 산업혁신과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함석현 (주)제이아이테크 대표이사, 김승현 (유)촌빛바이오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이아이테크는 내년 8월 새만금 산단 3만2,000㎡ 용지에 19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주)제이아이테크는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초정밀 반도체 재료 제조업체로, 2021년 전북도의 글로벌 강소기업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유망 기업이다.

새만금 공장에서는 반도체·오일LED(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재료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부품·소재의 국제 수급 불안 속에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촌빛바이오는 올해 5월 새만금 산단 5,000㎡ 용지에 169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기업은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수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낸 기술로 친환경 유기농 식물성장제 등을 제조해 전국 시·군의 원예농협 등에 납품하고 있다.

(유)촌빛바이오는 새만금 공장에 자동화된 생산체제를 갖추고, 해외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에 힘쓰는 한편, 우리나라 유기농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의 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이 기존 공장과 거래처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항만을 통해 수출 길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이아이테크의 함석현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초소재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촌빛바이오 김승현 대표는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 모두가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새만금에 동지를 둔 두 기업이 목표한 미래를 향해 합쳐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전북 제1호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준공

### 전주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하승호 LH국민주택복지지사, 안창진 LH전북지역본부장, 김종범 LH주거복지사업처장, 팔복동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공공리모델링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LH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방식으로,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모델이다.

팔복동 주택은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주택타입이라는 지역수요 맞춤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30호·창원18호, 고령12호)으로 오는 6월 시세 30%수

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일부는 전주시의 요청에 따라 청년예술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1층에 설치한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 고령자 등 지역주민의 주민복지증진과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호 LH국민주택복지지사는 "이번 사업은 LH 공공리모델링 사업과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결합되어 탄생한 제1호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팔복동 공공리모델링주택 사업을 계기로 LH와 전주시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거안정과 도심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 농협은행 전북본부, 1분기 경영성과 분석회의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28일 농협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1/4분기 경영성과 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무소장 및 영업본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경영성과 분석과 2분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북본부는 회의에 앞서 2021년도 방카슈랑스 사업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한 방카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특강과 각 사업부문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올해 중점 경영 달성 목표로 ▲기업여신 경쟁력 강화 ▲고객중심 금융서비스 ▲초혁신 디지털 뱅크 ▲ESG 경영 실천을 삼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